나는 그녀에게 책꽂이만한 시를 한 편 써서 보내주고 싶었다.

김온

[스틸 얼라이브], 청주시립미술관, 2018.10.18-2019.02.10

안소연

미술비평가

하지만 실패다. 나는 지금껏 한 번도 시를 쓴 적이 없고, 책꽂이의 크기 또한 가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책꽂이만한 시를 써서 그녀에게 보낼 도리가 없다. 굳이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나의 언어가 그녀에게 닿았을 때 그것이 어떤 기다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책꽂이만한 크기를 상상했던 것은, 그 시가 그녀의 방 한쪽 벽에 침묵처럼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결같음을, 나는 말하고 싶어서다. 결국, 이 글은 시가 되지 못할 것이며, 책꽂이처럼 벽에 붙어 아주 오래 바라보여지지도 않을 것이다. 시가 되지 못한 글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은 아니므로, 바라던 기다림이 아직 내 몸에 머물러 있다면 이 글의 궁핍함을 그래도 도울 수 있을 테지. 시가 아니라면, 나는 종이 위에 글자들을 얌전히 붙여 놓은 작은 조각 덩어리로, 이 글을 되돌려 놓고 싶다. 굳이 읽은 적 없는 글이 되더라도, 기꺼이 거기 계속 남아 있을 이유를, 나는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 문득, 자끄 드뉘망이라는 시인이 떠올랐다. 그를 떠올린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다섯 개의 음절로 머릿속에 적어내는 것과 같다. (자, 끄, 드, 뉘, 망) 혹은 띄어쓰기를 의도적으로 한 번 삽입할 때도 있다. (자, 끄, 드, 뉘, 망) 어쩌면, 내일부터는 그를 생각해낼 어떤 추상적인 형태가 나의 망막에 잔상처럼 남게 될 지도 모른다. 종이 위에 분홍색(fuchsia) 잉크로 출력한 드뉘망의 시는, 애초에 아무 색도 아니었겠지만, 그것이 시가 되기를 바라던 이(들)의 강요로, 분홍의 시가 되었다. 태어난 적 없는 시인은, 글자와 소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괴상한 이름을 얻고, 스스로 시인이 됐다.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시인이고, 그의 이름 밑에 으깨 놓은 글자들은 시가 된다. / 나는 자끄 드뉘망의 시를 읽는다. 제목은 벡사시옹. 또, 나는 지금 김온의 시를 본다. 그녀가 *바라보기 위한 텍스트; 자끄 드뉘망의 시*라고 이름 붙인 종이 위의 분홍 잉크를. 이 둘은 같다. 같음은 둘을 다름으로 유도한다. 드뉘망에게 시를 의뢰한 김온은, 그 유일무이함을 소유할 계획이었다. 벽에 붙여 놓고 자끄 드뉘망의 시인 것을 문득 떠올리다가도, 그것이 거기 있음조차 잊게 될, 망각으로 남게 될 이 무관심한 형태는 그녀의 것이 된다. 하지만, 바라본다는 행위는, 떨어져 있는 대상과 나의 몸이 한 공간을 같이 점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준다. 벽에 기댄 책꽂이처럼, 그 옆에 놓인 갈색 피아노처럼, 시는 그녀와 늘 함께 있다. 바라보기 위한 텍스트는 단지, 존재하기 위함이다. 시가 빈 공간을 점유하기 위함이다. / 선하씨 텍스트는 읽기 위함이다. 김온은 선하씨의 글로 읽을 수 없음을 연습한다. 읽기는 읽을 수 없음과 언제나 함께 한다. 회전하는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글은, 낭독자의 목소리를 미궁으로 가져다 놓는다. 소리 내어 읽는 행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서 중단되고, 읽기를 수행하던 몸은 배열이 끊긴 글의 파편들 속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를 멈춰 세운다. 댐 관리하는 일을 맡으면서 안개에 가려진 댐의 실체를 매일 의심하던 소설 속 청년처럼, 읽기를 수행하던 몸은, 읽을 수 없음에 대한 회의에 다다른다. 실패가 주는 회의감이야말로 읽기의 목표인 것이므로, 미궁에 빠진 목소리는 마땅한 공간을 점유하지 못한 채 자기 존재를 부정함에 이른다. / 선하씨의 글은 *리딩을 위한 선하씨 텍스트; 댐*으로 옮겨와, 읽을 수 없음으로 향하는 읽기의 시간을 견뎌낸다. 글은 스스로를 의심하며, 단어가, 문장이, 문단이

끊긴 자리에서, 읽기를 수행하는 익명의 몸에게, 비어있는 형태, 지워진 자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읽기 위한 글은 단지, 부재에 다가가기 위함이다. 의미와 형태의 부재를 알아채는 순간과 마주한 몸은, 읽기를 거부당한 몸은, 읽기를 원하지만 읽기가 고통스러운, 금지와도 같은 상실의 희열에 다다른다. / 인용부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은, 확고하지만 완전할 수 없다. 한 몽상가가 지난 밤 꿈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처럼, 안개 속에 가려진 댐의 형상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부호로 감싸 안은 글은 최초의 사람의 입술이나 손끝에 닿았던 언어의 현전을 (아니면 부재를) 붙들어 놓는다. 이러한 현전의 표시는 인용부호 안에 붙잡아 놓은 언어 뿐 아니라 그 바깥으로 사라져 버린 망각의 언어를 뚜렷하게 환기시키면서, 읽기를 서서히 지연시킨다. 잠을 잘 수 없었던 한 사내, 카프카(Franz Kafka)의 글이지만, 또 그것 아닌 것. 인용부호에 가두고 다시 배열하기를 몇 번 시도한 끝에 한 권의 책이 되었다. 기억을 기록하려 했던 자, 그 기록을 읽는 자, 그 읽기를 다시 기억하는 자, 그 기억을 다시 기록하는 자, 그 기록을 다시 소리 내어 읽는 자들…. / *기억과 기록 사이의 목소리 사용법*에는 두 사람의 낭독자가 등장한다. 한 사람의 기록자도 둘과 함께 있다. 인용부호 안에 있던 글은, 크게 확대되면서 짜임이 느슨해 보인다. 꿈을 꾼 자의 기억이 흐릿하게 현전해 오던 글은, 그렇게 믿었던 글은, 누락된 부재의 행간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만큼 헐거워졌다. 누구의 꿈이었던가, 또, 누구의 글이었던가, 두 사람의 읽기와 또 한 사람의 기록은, 잠 없는 꿈처럼, 기억할 수 없는 목소리들의 기록으로 갑자기 나타난다. 낭독하는 두 개의 목소리와 그 소리를 기록하는 자판 소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응답하면서도, 교차하듯 무관한 소리를 허공에 뱉는다. 잠을 이룰 수 없는 한 남자의 꿈에 대한 기억을, 아니, 기록을 발췌해 놓은 책은, 다시, 그 연속하는 사건들의 신중한 접합면을 가로질러 그 무관함에 다가간다. / 무관함. 그것은 분절시켜 흩어놓은 음절들을, 동일하고 느린 목소리로 날카롭게 읽어내는 행위처럼, 의미로부터 멀리 달아난 공허한 형태를 구축한다. *열려있지도 닫혀있지도 않은 육면체의 책*에서, 나는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책꽂이만한 시를 다시 한 번 상상했다. 얌전한 조각 덩어리가 될지도 모를. 그녀는 가로가 좀 더 긴 액자에 손으로 타이핑한 문서 한 장을 왼쪽으로 치우치게 끼워 넣었다. 일단 나는 그것을 문서라고 부른다.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단편 바벨의 도서관(La bibliothèque de Babel) 전문을 A4 용지 한 장에 전동타자기로 여덟 번 겹쳐서 타이핑한 이 문서는, 차라리 그림이든가 조각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녀는 여덟 겹의 잉크를 지탱하고 있는 한 장의 종이를, 책이라고 부른다. 책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읽을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래서 그림 같기도 하고, 조각 같기도 하고, 선반 같기도 하고, 미닫이 문 같기도 한, 깊이 없는 육면체다. 단지, 바라보기 위한 책, 그것이다. / 쓰기와 읽기, 둘은 언제나 서로가 드러나지 않음을 통해 서로를 우회하며 스스로의 현전을 드러낸다. 자끄 드뉘망의 시가, 그 곳에 한결같음으로 서 있으려면, 그것은 읽지 않아도 좋을, 거꾸로 읽어도 무방한, (실패한) 읽기로부터의 예외와 해방을 충분히 기다려야 할 것이다. 사라질 글을 쓴다는 것은, 틀림없이 읽을 수 없음으로, 쓰기와 읽기의 필연성에 대한 지속적인 망각으로, 몰아간다. 김온. 그녀의 내밀한 제안은, 두 사람이 주고 받는 대화처럼, 쓰기와 읽기 혹은 말하기와 듣기 사이의 어긋남에 대한 필연성을 앞당겨 놓는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책꽂이만한 시를 한 편 써서 보내주고 싶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 말하여진 필연적인 어긋남을 (포기하기) 위해.

만일,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 이 글이 시가 된다면, 나의 긴 호흡을 끊고 글을 다시 배열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 일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